

● 註韓 外國文化院圖書室 探訪

開放된 海外 最新資料

美國文化센터

美國이 우리 나라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만큼 美國文化센터 도서실은 가장 자리가 잡히고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진 센터이다. 서울 世宗路에 있는 USIS「빌딩」1, 3층에 일반 도서실과 참고자료실이 있고 8천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또 釜山·大邱·光州에도 도서실이 있어 각 6천권의 책이 있다.

이 도서실의 특징은 社會科學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美國의 정치·경제·역사·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기간행물과 자료나 국제문제자료 2백종이 망라되어 있다. 美國會의 聽聞錄, 外交文書 등도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다. 1, 3층 합행 80여개의 좌석에 하루 이용자는 2백 50명정도다, 학생·교수와 연구원들이 주로 學術잡지를 보고 간다. 完全開架式이며 회원에 한해(특별 申請에 의해 가능) 2주일간 대출도 된다. 도서이외에도 정치·경제분야의 VTR「필름」등이 있어 원하는 단체에 출장 상영도 한다.

英國文化院

國交樹立은 상당히 오래되지만 영국문화원이 문을 연 것은 지난 1973년이다. 그간 대사관에 비치했던 장서를 확충해서 文化院圖書室을 꾸렸다. 장서량은 정기간행물을 합해 4천권 정도이다.

英國을 소개하는 圖書가 主流를 이루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分野는 文化·教育과 技術産業부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대부분이 英國유학을 원하는 대학원학생 및 교수와 産業系統의 연구원들이다. 文化院에서는 『英國産業 뉴스』라는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기도 한다. 현재는 도서의 室外貸出은 금하고 있다. 내년 2, 3월 正式 開館후에나 대출될 수 있을듯 하다.

프랑스 文化院

서울 鍾路區 司諫洞 경봉궁 건너편에 자리잡은 불란서 文化院에는 6천권의 圖書·雜誌와 10席정도의 자리

가 준비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대부분이 佛文學作品이다.

그밖에 政治·社會科學·자연과학·예술·철학책들이 있다. 「카드」를 찾아 책을 열람하는 閉架式이며 1인 3권이 2내주일간 貸出도 된다.

이용자는 대부분 佛文科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며 여학생 이용자가 특히 많은 편이다. 佛文化院에는 책을 보기보다는 매일 상영하는 「프랑스」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獨逸文化院

1972년 韓·獨文化協定에 따라 文化院을 개설하고 도서실도 설치했다. 책은 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 총 5천 4백 60권, 각 專門分野가 비교적 골고루 배정되어 있으나 순수문학·獨逸學·예술·역사·천학·心理學 등이 많은 편이다. 신문 4종과 음악·영화평론·경제·연극·時事 등의 잡지 43종이 들어 온다. 이책들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며 완전 開架式이다.

그밖에 주로 古典音樂을 담은 音盤 2백 88점과 강연·獨逸文學해설을 담은 녹음「테이프」 2백 65종, 獨逸美術品을 찍은 「슬라이드」 1백 16점이 준비되어 있다. 音盤 「플레이어」 3대와 영사기가 비치되어 음악과 「필름」은 수시로 들고 볼 수 있다.

좌석은 약 20석이고, 고정이용자가 약 1백 20명에 작년 1년간 약 1천 5백명이 책을 이용하였다.

日本公報館

지난 4월부터 서울 齋洞「로터리」 國源「빌딩」 1층에 도서실을 開設했다, 80평에 56개의 좌석, 3천 8백여권의 책을 갖추고 있다. 文化·學術·藝術·종교등 각분야의 책과 日刊新聞 8종, 40종의 雜誌를 갖추고 있다. 잡지는 과학·의학·時事·미술·법률·공업·여성 등 각분야를 포함한다.

이용자는 하루에 80명정도이며 이중 60%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보러 온다. 연령층이 40대 이후라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貸出은 안하지만 閉架式이다. 문화영화 60편과 약간의 音盤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다.